

2013년도 국내교육훈련보고서

국외 고령화 대책과 시사점

교육훈련기간 : 2013.1.1-2013.12.31

훈련기관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연수자 : 선임연구위원 성 태 규

〈제 목 차 례〉

1. 필요성	1
2. 퇴직 유인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	4
1) 요약 및 주요결과	4
2) 현황	5
3) 국가의 정책적 대응	6
4) 개혁 동향	7
3.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연령제한 없는 직장은 가능한가?	10
1) 요약 및 주요 결과	10
2) 현황	11
3) 개혁동향	11
4. 재정 공고화 - 많은 국가에서 가시적으로 진행	13
1) 요약 및 주요결과	13
2) 현황	14
5. 퇴직소득 보장 개혁	16
1) 요약과 주요결과	16
2) 현황	17
3) 정책적 과제와 국가의 대응범위	18
4) 개혁의 경향	18
6. 노인빈곤 대응 성공사례	21
1) 요약과 주요 결론	21
2) 현황	21
3) 정책과제와 대응	22
4) 개혁의 경향	22
7. 보건과 장기요양	23
1) 요약 및 주요 결과	23
2) 현황	24
3) 개혁의 경향	24
8. 퇴직으로의 전환	26
1) 요약 및 주요결과	26
2) 퇴직시기	27
9. 경제활동기와 은퇴기의 생활시간 소비 경향	30

1) 요약 및 주요결과	30
2) 적극적 고령화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30
3) 예상되는 쟁점들	31
10. 일부 국가에서의 개인적·사회적 고령화 시나리오	32
1) 요약 및 주요결과	32
2) 근로와 비근로 소요년수	33
3) 고용 인구집단의 비중	33
4) 미래 시나리오	34
11.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다음 조치	35
1) 요약 및 주요결과	35
2) 미래의 모니터 대상 : 노인, 고령 인구집단, 그리고 퇴직 인구집단 ...	35
3) 향후 연구내용	37
4) OECD의 대응	38

<부록>	39
1. 호주	40
2. 오스트리아	42
3. 벨기에	44
4. 캐나다	46
5. 체코	48
6. 덴마크	49
7. 핀란드	51
8. 프랑스	52
9. 독일	53
10. 그리스	54
11. 헝가리	55
12. 아이슬란드	56
13. 아일랜드	57
14. 이탈리아	58
15. 일본	59
16. 한국	60
17. 룩셈부르크	61
18. 멕시코	62

19. 네덜란드	63
20. 뉴질랜드	64
21. 노르웨이	65
22. 폴란드	66
23. 포르투갈	67
24. 스페인	68
25. 스웨덴	69
26. 스위스	70
27. 터키	71
28. 영국	72
29. 미국	73

1. 필요성

수십 년 동안, OECD 국가의 인구 및 노동력 추이는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해 왔다. 취업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여 왔다. 남성의 경우 일생 동안 취업상태에 있는 기간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남성 취업자는 과거에 비해 조기에 퇴직하고 일단 퇴직한 후에는 보다 오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생애 취업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쇄되었으며,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오히려 취업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가능인구에 속한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이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우호적인 경향은 5~10년 이내에 역전될 수 있다. 즉이비붐 세대가 퇴직연령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퇴직 인구를 포함한 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OECD는 1998년 「고령화 사회의 변영유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인구변동이 재정, 경제 및 사회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퇴직 연령 변화의 잠재적 효과 등 개별 OECD 국가에 미치는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가 단행한 주요 개혁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 있어서 노령 근로자의 취업가능성을 지원하고, 노령인구의 건강과 요양 욕구에 부응하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적 연금저축(private pension savings)을 취급하는 금융시장의 작동을 개선하는 개혁정책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개혁정책들은 대부분 기존의 시스템이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개혁정책 의제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재정시장,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책 개혁을 통해 지원이 증가하면 고령화 사회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한편, 취업-퇴직 전이와 퇴직소득의 재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는 보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생애 취업기간이 보다 짧아지고, 퇴직 후 기간이 보다 길어지고 있는 경향을 느리게 하거나 궁극적

으로는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 안정화(fiscal consolidation)가 개혁의 주요 동력이며, 공공과 사적 연금의 균형, 조세제도, 그리고 특히 근로소득 등 보다 다양한 퇴직소득 시스템은 주요 성과가 될 것이다. 보다 활발한 사적 연금 활용은 노령인구의 소득 통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개혁정책은 자본소득이 장래에는 점차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조기퇴직경향의 결과로 현 노령인구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조기퇴직 경향은 과거 수년 동안 정체상태에 있으며,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개혁 추이로 볼 때 근로소득이 장래에는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퇴직에 대한 재정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퇴직 재정부담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최근의 개혁 의제는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한 재정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많은 국가에 있어서 여전히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필요한 재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새로이 나타나는 의제는 퇴직 후 기간의 장기화와 생애 취업기간의 단축 경향을 역전시키는데 주어지게 된다. 발생하는 변화의 규모와 새로운 정책 의제의 형태는 세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담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 있어서 조기퇴직의 경향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활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조기퇴직경향이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늦게 퇴직하는 경향에 대한 증거는 없다. 또한 퇴직이 보다 유연해 졌다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퇴직과 활발한 고령화(active ageing) 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은 보다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과거의 노인은 주로 일로 시간을 보냈다면, 대부분의 현 노인들은 퇴직 후 TV시청이나 수면 등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균형과 같은 잘 알려진 정책 논쟁들은 퇴직 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역할이 장래에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점차 맞벌이부부 양측의 근로소득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노년기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매우 긴 노년기의 수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OECD를 포함한 국제적인 수준에서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인 경향을 모니터링 하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니터링은 취업 기간과 퇴직 기간의 균형과 같은 주요 이슈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퇴직제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중요한 다음 단계는 효과적인 개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자료(특히, 비교 가능한 체계적인 정보)의 괴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2. 퇴직 유인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

1) 요약 및 주요결과

1998년 발표된 OECD 보고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는 조기 퇴직에 대한 유인책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금제도 및 공공부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동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퇴직자 규모의 증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산가능 노동력 규모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은퇴를 결정하는 개인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연금제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가능 노동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야기되는 재정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력 감소 현상이 단순히 조기퇴직 이후 보다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개인의 선택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시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각종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이 제시하고 있는 유인책들에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고용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모든 개인은 자신의 퇴직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가능한 자유로워야 하며, 퇴직 후 전개되는 제3의 인생기에 집중된 여가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정책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론적으로 활발한 고령화(active ageing)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조기퇴직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조기퇴직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개인에게 자신의 퇴직시기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혁의 노력이 지난 수년간 이루어져 왔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이 문제를 공공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히 야심 찬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서 연금제도에 있어 근로유인책이 강화되거나, 장애수당 및 실업급여와 같이 조기퇴직 이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적 수단에 이르는

다른 경로들이 폐쇄 또는 제한되었으며, 취업상태에서 퇴직에 이르는 점진적인 전환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학문적 연구, 정책계획 수립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행되고 있다.

사실, 기존의 공공 정책은 조기퇴직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실업률을 낮추는데 조기퇴직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수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정책동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혁의 정도는 상당히 다르지만 최근의 정책들은 은퇴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취업에서 퇴직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지지하는 명시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기간 연장을 방해하는 정책을 제거할 것인가 또는 보다 장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유인책을 추가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은 아직 없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초기 연금제도 개혁의 효과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개혁의 효과성은 수년간 진행되는 개혁의 영향이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동시에 개혁에 대한 노동시장이나 경제상황의 반응은 물론 인구구조나 규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논의하게 될 제1차 개혁은 조기퇴직 경향을 완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현황

인구현황 및 노동시장 여건을 볼 때, 퇴직자 수와 비교하여 생산가능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고령화 문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 OECD 국가의 사회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보다 일찍 퇴직하고 은퇴 후에는 과거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되며, 베이비 붐 세대가 2010년 즈음 퇴직연령에 도달하여서도 현재의 조기퇴직 경향이 지속된다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연금을 수급하고 기타 연령과 관련된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1) 생애기간 노동시장참여 현황

① 생애기간 중 취업 및 비취업 기간

OECD 국가 전체로 볼 때, 남성의 임금노동 참여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은퇴 후 시간이 훨씬 증가하였다. 1960년, 남성의 평균수명은 68세이고 이 중에서 50여년은 고용상태에 있었다. 현재, OECD 국가 남성의 평균수명은 75세 가량 되지만 이 기간 중에 약 절반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가한다. 남성의 근로연한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여성의 근로연한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인구대비 노동시장 참여율 및 취업률

남성의 근로연한 단축의 영향은 인구고령화 및 여성의 취업증가로 상당부분 상쇄되었다. 또한 전후 베이비 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한 인구가 증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을 정점으로 취업률은 감소할 것이다. 현재의 노동시장 참여유형이 유지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기에 이르면 전체 인구에서 취업한 인구의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나타난 조기퇴직의 영향은 5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을 낮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55~64세 인구의 60%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헝가리, 벨기에,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들 연령층의 30% 미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국가의 정책적 대응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대한 추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대안이 고려되는 시나리오 검증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국가일수록 서둘러 개혁방안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일부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기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개혁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 추진은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4) 개혁 동향

① 연구, 계획, 그리고 합의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존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는 노인정책팩키지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동 정책팩키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55~65세 인구의 취업률을 현재 25~3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령에 대하여 다소 비전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고령화 및 연금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정책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고용에서 은퇴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유용한 실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상태, 소득수준, 노동시장참여 형태 등을 포함하여 생애단계별 특성 및 변화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자료수집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연금제도 근로유인책의 수정 - 연령기준의 개혁

퇴직연령이 고정된 상태에서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생애기간 동안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비교하여 은퇴 후 보내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OECD 보고서 「고령화 사회의 변영유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은퇴기로의 급작스러운 전환과 조기퇴직 관행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노동시장참가율이 괄목한 만한 증가를 보인 것은 좋은 사례이다. 뉴질랜드와 같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혁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을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한편,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소득보전의 수급연령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③ 연금제도 근로유인책의 수정 : 기여와 급여의 연계

연금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많은 연금수금액 산출공식에 내재되어 있는 장기

간의 취업에 대한 별점요인(예를 들어, 연금수급액 수준이 최종 또는 최고 임금 수준에 준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기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정 연령 이후의 노동시장 참가는 연금수급액 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은 전체 생애기간의 기여정도에 따라 수급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일종의 재정적 보상을 담보하는 것이다.

④ 은퇴에 이르는 일부 경로의 폐쇄 또한 제한

보편적인 연금수급 경로는 필요에 따라 공적 연금의 수급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장애수당이나 실업수당 등의 수급경로와 같은 다른 대안적 경로와 상호보충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기퇴직 경로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고령 근로자들을 기업에서 퇴출시키는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서, 퇴직에 이르는 이러한 보충적 경로들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많은 나라들이 질병급여 또는 장애연금의 남용에 따르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⑤ 새로운 은퇴경로의 강화 : 점진적 전환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점진적 전환과 고령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임금수준이 낮더라도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생애기간 동안 개인의 기여 정도와 연금수급 수준을 연계하는 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 이러한 시도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의 개혁방안들은 퇴직 직전의 임금수준에 연금수준이 연동되도록 하는 과거 연금제도의 비유인(disincentives)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있다.

⑥ 참여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단

OECD 국가의 인구현황이나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여 취업률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퇴직관행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퇴직연령과 관련된 이슈는 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특정 연령층뿐만 아니라 전체 연령층에서 취업률을 제고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방안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 논의의 필요성 때문에 연금개혁에 있어 많은 국가에

서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 및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3.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연령제한 없는 직장은 가능한가?

1) 요약 및 주요 결과

고령근로자가 직업을 구하거나 특히 직업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없다면, 고령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행동원칙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고령화개혁의 성공 여부는 전반적인 실업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정도와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은 개별 국가의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비취업 고령근로자에 대한 구직 지원, 그리고 일반 고용 프로그램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은 대부분의 개혁이 근로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그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는 퇴직에 대한 유인책이 적절하고, 전반적으로 노동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특별히 고령근로자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적을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모든 연령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명백히 실업을 축소하는 경제 및 고용 정책이 포함된다. 연령차별철폐나 법정 퇴직연령 등 고령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은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는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모든 연령층을 위한 평생학습은 주요 주제이며, 작업장 건강과 재활 이슈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 현황

조기퇴직 경향은 노동력에서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연령 관련 장벽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생학습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을 모든 연령 계층이 활용하고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들은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특별히 중요한 정책과 제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혁은 이러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3) 개혁동향

(1) 고령근로자 고용 유지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개혁은 강제퇴직연령의 철폐와 고령근로자를 일시 해고하거나 또는 고령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고령근로의 개념의 증진이나, 사례연구 또는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모범사례의 취합 등 유럽연합(EU)차원에서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고령근로자 구직 지원

호주의 경험은 노동시장에서 고령구직자가 겪고 있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종합적인 노동시장 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통계를 통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실업자에게 어떤 종류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18가지의 요인(연령 포함)에 기반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25-39세는 3점, 50-54세는 7점, 그리고 55세 이상은 9점을 받게 된다. 또한, 45세 이상인 남성은 추가로 3점을 받게 되는데, 이는 45세 이상 여성에 비해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3) 전 연령층을 위한 노동력 증진

호주 모델을 포함한 각국의 일련의 개혁들을 보면, 고용 정책과 사례들은 전체 노동력, 즉 전연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근로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고령이 되었을 때 최신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평생학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고령근로자가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노동력의 유연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는 젊은 근로자의 작업 스케줄의 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고령화와 “근로능력” - 고용가능성보다는 넓은 개념임 -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범주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의 다수는 정부 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작업장에서의 관행과 관련이 있다. 또한, 그 효과는 대규모의 개혁보다는 작은 변화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종합적인 작업생활 개혁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2.4는 주로 홍보용으로 발표된 조치계획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작업장에서의 연령차별 금지와 다양한 연령대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인정하는 정부정책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선전용 홍보의 대다수는 1999년 국제연합 노인의 해와 일부 관계가 있다. 조치계획들은 특별히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연령주의(ageism)”에 대한 전쟁과, 국가의 경제사회분야에서 고령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증진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보다 잘 조정하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의 개혁으로부터 2가지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은 일반적으로 정책수립에서 친숙한 주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고령근로자에게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직업보전과 재활조치들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의 프로그램들은 긴 역사를 가지지만, 고령자에게 생산적인 직업생활을 연장한다는 견지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가진다.

4. 재정 공고화 - 많은 국가에서 가시적으로 진행

1) 요약 및 주요결과

인구학적 압력 예측 뿐만 아니라, 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오랜 동안 국가·국제적으로 주목 받아 왔다. 「고령화 사회의 변영유지」보고서가 밝힌 재정적 압박은, 연령 연계 프로그램의 개혁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간 더욱 재정 공고화와 채무 감소를 위한 조치를 개발하게 할 것이다. EU 국가들 또한 마스트리히트 원칙에 따라서 적자(그리고 공공 채무)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로 지출 삭감을 통해서 공공 채무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의 개혁을 시도해왔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재정 공고화를 공공 정책의 계속적인 도전으로 인식했고, 그에 따라 과감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개혁의 한 축은 대체율 감소, 최대 급여 수급에 필요한 년수 증가, 그리고 자산 조사 급여비중 증가와 같이 기존 급여 제도(주로 연금과 장기 요양)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공적 연금의 비중이 큰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기여변동에 상응하여 급여 수준을 맞추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개혁의 두번째 축은 부가방식과 적립적 요소 사이의 균형 이동 등 제도 자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였다. 세번째 축은 특별히 연령 관련 지출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명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적자가 누적되던 추세는 방향을 틀어 많은 국가에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의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와 함께 지출과 수입 사이의 균형(혹은 흑자)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과 다른 연령 관련 지출에 대한 개혁 등 추가적인 재정 개혁이 없이는 몇 년 안에 다시 재정 압박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개혁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출발은 순조로웠다.

2) 현황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공공 부문 적자와 GDP 대비 채무를 상승을 경험했다. 재정 공고화 프로그램의 지속 시행은 대부분의 회원 국가에서 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현재의 인구학적·노동 시장 경향이 계속된다면, 5~10년 내에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며, 공적 급여를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무 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세금의 대폭 증가와 혹은 공공서비스의 대폭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1) 개혁의 경향

재정 공고화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 정책의 주요한 도전이었다.

① 지출삭감 혹은 기여율 증가

많은 국가에서 공적 연금의 대체율이 삭감되었다. 실질 퇴직 연령이 상승했거나, 자산 조사가 확대되었거나, 또는 조기 퇴직 급여수급조건이 보다 엄격해졌거나, 아니면 최대 연금 수혜 원칙이 엄격해졌다. 많은 국가들이 기여율 증대를 선택했다. 몇몇 국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엄격한 부가방식 원칙을 채택했다.

이 전략은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것이다. 캐나다는, 같은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부가방식에 적립금을 쌓고 있다. 그 밖의 나라(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등)들은 장래의 연금 지출을 위해 일반 조세를 배당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하고 기여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급여 수령 기간을 줄이는 개혁방식이 덧붙여진 것이다. 하나의 해결책은 자산조사 급여와 같은 표적화 방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반면, 자산 조사는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번갈아서 근로 유인 강화 수단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② 연령과 연계되지 않은 프로그램

비록 많은 국가에서 연령 연계 지출이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연령 연계 프로그램에서만 재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 호주의 경험은 고령화의 압력을 경감시키는 데에 광의의 정책 조치들이 크게 기여함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메디케어에 대한 연령 연계 지출은 삭감된 반면 기여 증대나 급여 삭감 없이 공적 연금 프로그램은 유지되었다.

호주의 경우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통해 재정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인구 고령화로부터 발생하는 압력에 대비하여 건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5. 퇴직소득 보장 개혁

1) 요약과 주요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퇴직소득제도의 구조개혁은 정부정책 개혁안 중의 주요사안으로서, 많은 국가들은 이미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전 개혁은 소득과 여러 종류의 공·사적 연금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다양화한 제도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에서는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결과물 중의 하나로 변화하였다.

대부분의 제도 개혁은 다음 4개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 첫째, 현대적인 연금 모델 구축에 목적을 둔 개혁, 둘째, 사적 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셋째, 공적 연금을 재구성하는 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다양한 모델로 진행되는 개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구조상의 조정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둔 구조개혁에 관해 많이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노인층에 대한 소득 관련 제도의 다양한 발달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은 퇴직 소득보장제도를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퇴직제도 자체를 재정립시킬 것이다.

2) 현황

퇴직소득보장제도는 주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공적 정률연금, 강제적 사적 연금(소득비례), 그리고 개인의 자유 저축 등 -의 복합적 형태로 구성된다.

(1) 고소득자에게 중요한 사적연금 및 다양한 형태의 자산소득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의 고소득 노인집단의 30%는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s)과 자유저축이 소득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이탈

리아, 스웨덴,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 비율이 훨씬 낮다. 당연히 최저소득을 가진 30%의 인구 집단에겐 사적 연금이나 자산소득은 주요한 자원이 아니다.

(2) 공적 연금

30%의 저소득집단은 대부분의 소득을 공적 연금과 기타 수당에 의존하고 있다. 이 표는 조세와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이같은 기타 수당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고 독일의 고소득 노인집단에 있어서도 순이전 소득(연금 등)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3) 소득활동

소득활동은 총소득의 양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노인의 또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은 소득 활동에서 오는 소득으로서, 퇴직 한 노인 자신의 근로소득 혹은 동거하는 가족의 근로 소득이 모두 해당된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있어서 근로소득은 그 비중이 매우 적다. 이러한 경향이 일본에서는 예외인데, 이는 더 오래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고소득 노인들이 65세에 정년 퇴직한 뒤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50% 수준에 불과하지만,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거주환경과 노동시장 참여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4) 소득재원 감소 및 개인연금 증가

일반적으로 소득활동에 의한 재원은 감소하고 개인연금과 개인저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득 활동에서 나오는 재원이 감소하는 것은 조기 퇴직 및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경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연금자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령을 높이고 공적 연금을 감소시키려는 최근의 개혁은 소득활동이 감소하는 현재의 추세에 반하는 정책일 수도 있다.

오늘날 노인의 소득원은 연금제도, 개인저축, 그리고 기타 근로소득 등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축적한 자원에 영향을 받는다. 조기퇴직을 선호하는 최근 몇 십 년 간의 경향을 보여 준다. 노인의 소득원으로서 소득활동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다. 조기퇴직을 예방하는 최근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몇

년이 소요될 것이다. 정책의 결과로 인하여 노인 부부 각각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노인가구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노인의 소득지위(income position)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년 퇴직한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많은 일본 노인들은 대가족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그 예이다. 캐나다 역시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3) 정책적 과제와 국가의 대응범위

개혁의 목표는 대개 제도 자체의 다양성 확대라기 보다는 재정 공고화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게 퇴직소득보장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측하건대, 최근 개혁들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각국 노인들의 소득을 다양화할 것이라 한다. 노인의 소득이 다양화할 것이라 예측하지 않았던 국가들 중에서도 이미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다양화한 체계를 구축한 경우가 있다.

4) 개혁의 경향

(1) 현대적 연금모델의 구축

“현대적” 연금개혁안은 적용범위가 넓고,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하며, 공적 요소와 사적 요소가 혼합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층체계(규모가 큰 부과방식 공적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연금 체계와 반대되는 의미이다. OECD의 많은 국가들은 현대적인 연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혁안을 도입하였다.

멕시코는 최근 연금의 현대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특히 통합적인 개혁이다. 사적 영역의 근로자를 위하여 개인 계좌에 적립금을 예치하는 적립식 연금을 도입하여 민간 부분에 관리운영을 맡겼다. 또한 의료보호와 장애연금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개혁하였다.

(2) 사적 연금의 강화

많은 국가에서 사적 연금은 아직 그 규모가 작다. 이러한 사적 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 축소추세에 있는 공적 연금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기업연금이나 소득비례형 보충연금, 그리고 자유저축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도입했다. 이중 어떤 것들은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의 운영을 향상시키고 연금 기금의 관리를 개선시키려는 조치이다. 호주의 개혁은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보장망을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강제 개인연금으로 이행시켰다.

(3) 공적 연금 개혁

일부 국가들은 공적연금 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기본적으로 부과체계에서 사전 기여방식(greater advance-funded)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 등 공적 연금이 명목확정기여체계(notional defined-contribution accounts)로 전환된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국가들이 연금 개혁안의 내용 중에서 특히 명목확정기여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국가가 퇴직에 관한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내용처럼 전체적인 연금 개혁의 실제 결과를 강조하였다.

(4) 연금 중점 정책을 뛰어넘어

어떤 국가들은 전통적인 연금층을 뛰어넘어 특히 퇴직 소득체계가 조화되고 다양화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증가하는 소득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예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 세금의 역할이나 보건, 장기요양과 같은 노인을 위한 공적 이전의 역할은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정책은 노인들을 지원하는 자원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연금자체에 국한하면 안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4층 연금체계를 도입하였다. 법적 연금은 노령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층으로써 유지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수용 가능한 삶의 수준을 명심해야 한다. 2층은

기업 연금으로서 더 강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층은 개인 저축이며 역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 도입된 4층에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회사의 수익과 생산 자본을 더 나누어야 할 것이다.

(5) 장기 문제점

많은 국가들이 개인 생애의 소득을 재분배하며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소득비례형 공적 연금을 갖추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변영유지」는 장기적인 목표로서, 소득 재분배와 빈곤퇴치 정책은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체 생애 동안 각출한 보험료와 급여를 연결시키려는 개혁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빈곤퇴치 정책을 완전히 분리한 나라는 없다. 보다 일반적인 예는 소득비례적인 연금 내에서 다양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빈곤방지과 소득재분배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하였다. 사회보장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를 위한 폭넓은 소득분배를 제공하며 저소득자 대부분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 십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인 빈곤방지 정책으로 보기보다는 국민들이 '취득한' 급여의 일종인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에 강조되었으나, 미래를 위한 개혁을 고안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현재의 체제는 이도 저도 아닌 형태이며, 어느 입장에서든 명확히 방어될 수 없다. 사회보장에서 빈곤방지의 관점은 획득된 권리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상되는 역영향으로 인하여 개선책을 적용하기 복잡해질 수도 있다.

6. 노인빈곤 대응 성공사례

1) 요약과 주요 결론

노인빈곤 퇴치는 연금정책의 주요 목표이자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제까지의 성공을 최근 개혁이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인들의 경제적 위치는 개선되어왔고 최근 개혁들도 그러한 성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조사연구와 협의 기제(co-ordination initiatives), 저소득 국민을 위해 기초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개혁 그리고 특히 유족 등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춘 개혁들이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결론은 최근 개혁이 반드시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관대함을 줄이거나 최저 소득계층의 지위를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여 노인 빈곤의 기타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2) 현황

노인 빈곤은 OECD 국가에서 제거되지 못했다. 여전히 해결을 요하는 힘든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주로 여성)의 빈곤이 그것이다. 주요 정책은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모두 다 특정 인구층과 연관되어있다. 노인의 빈곤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빈곤인구에서 노인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실제 가처분소득은 은퇴 시점에서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은퇴 후에 노인들은 은퇴 전 소득의 약 80%를 확보하는 편이다.

3) 정책과제와 대응

정책과제는 우선, 독거노인 특히 여성을 포함한 저소득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최근의 주목할 만한 개혁 과정이 의도하지 않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4) 개혁의 경향

(1) 연구와 조정

뉴질랜드는 여타 국가들처럼 빈곤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상당히 편안한 환경에 있다. 이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2000년 퇴직연금추진위에서는 뉴질랜드 노인의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위탁하였다. 새 정부에 의해 추진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지만 위탁된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사회정책부(the Ministry of Social Policy)에 의해 감독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령화와 연금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포함한다.

(2) 저소득층을 위해 더욱 충분해진 공적연금

근로유인에 대한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 특히 급여의 자산조사와 관련하여 그렇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자산조사에 의한 연금의 복합적 영향이 발생하고, 일반세가 다수 저소득 노인들에게 높은 유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을 유발했다고 보여 진다. 비록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이것들이 근로와 투자에 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0년에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국가들의 개혁은 이러한 유효 한계세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노동시장 참여와 퇴직유형에 대한 효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7. 보건과 장기요양

1) 요약 및 주요 결과

보건과 장기요양 개혁에 관한 주요 관심사는 보건 의료(health care), 의료 연구 그리고 장기 요양 제도가 주로 나이든 인구 집단에게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 의료 제도는 개혁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그러나 고령화 그 자체가 개혁의 지배적인 동력은 아니다. 장기 요양에서 주요 주제는 보건 의료 서비스와 장기 요양 서비스 간의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것이다. 장기 요양은 지역사회와 재가 기반 급여 쪽으로 전반적인 이동이 이루어진 데 반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포괄적인 제도가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독일에서 실시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개혁이 있었고 일본도 근본적 개혁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대부분은 점진적인 것이었으며, 기존 제도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최근의 연령 연계 개혁은 다음의 주제들로 분류될 수 있다. (1) 지역사회 그리고 재가 기반 장기요양 자리매김 (2) 보건과 장기 요양의 통합·조정 (3) 보건과 장기 요양의 재정 조달 (4) 효과적인 개혁을 유지하는 정보 전략, 그리고 (5) 고령화 압력에 대한 장기적 능력의 강화

2) 현황

많은 연령 연계 개혁은 장기 요양에 초점을 맞추고, 고령화가 장기 요양에 미칠 압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장기 요양의 공공 지출에서 국가간에 큰 차이가 있다. 장기 요양의 공공 지출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이지만, 스웨덴에서는 3%에 가깝다. 노르웨이의 수치는 스웨덴의 수치와 비슷하다. 장기 요양의 총 지출액 또한 큰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총 지출은 90년대 초에 3%에 이르렀다. 반면, 미국, 영국, 그리고

벨기에는 1.0%에서 1.5% 사이이다.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수치는 표에서 제시된 나라들보다 더 낮다. 고령화 자체의 영향, 특히 초고령자의 증가는 시설 요양에서 큰 차이를 낳는다.

그러나, 만일 경증 장애 비율이 늘어나는 최근 경향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비용 증가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시설 비율은 또한 미래 비용에도 영향을 준다. 재가 요양(home care)과 시설 요양 간의 균형이 바뀌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 발전 역시 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중증 장애와 시설 입소 추정이 과대예상 되었다면 고령화와 관련된 비용 상승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다.

3) 개혁의 경향

(1) 지역사회 그리고, 재가 기반 장기요양

많은 개혁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와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나은 방안에 집중했다. 특히 호주는 도우미(care-giver)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수준으로 책임이 이동되면, 주요한 주제는 보건과 장기 요양에서 행위자들(actors) 간의 조정(co-ordination)이 된다. 많은 나라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의 탈중앙화를 강조했다-그리고 나서 서비스의 조정을 강조한다. 주요 주제는 지방과 중앙 정부 사이의 조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2) 보건과 장기 요양의 통합·조정

보건과 장기 요양의 더 나은 통합을 찾는 개혁은 장기 요양의 탈중앙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대부분의 OECD 국가에 해당. 각국은 독립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왔는데, 거의 모든 주요 개혁은 비슷한 연구와 조정 강화의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3) 보건과 장기 요양의 재정 조달

재정 관련 개혁은 보건과 요양 제도가 고령화의 압력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여러 가지 방법적 접근이 있다. 몇몇 나라들은 전통적인 공적 해결책이 아닌 사적 대안을 가지고 더욱 다양한 모형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서비스와 재정을 연계하는 많은 새로운 모형들을 실험중이다. 반면, 중부 유럽은 보다 기본적인 재정 개혁 과정에 있다. 장기 요양의 재정과 전달 체계에 관련하여 몇몇 기본적인 개혁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90년대 중반 개혁을 도입했으며, 일본은 새로운 장기 요양보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4) 효과적인 개혁을 유지하는 정보 전략

많은 나라에서, 효과적인 개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응용 연구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는 또한 「고령화 사회의 번영유지」의 중요 메시지이다. 미국은 고령화의 도전에 대해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5) 고령화 압력에 대한 장기적 대처 능력 강화

개혁의 또 다른 주제는 비용효과성을 보다 장기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 과정을 강조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는 인구의 점진적 고령화에 따라 더 중요하게 된다. 물론, 연령과 연계된 질병의 치료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의학·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며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요한 주제는 건강 증진과 같은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다.

8. 퇴직으로의 전환

1) 요약 및 주요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기퇴직 경향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퇴직을 늦추고 있는 증거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퇴직이 더 유동적이 되었다는 증거도 별로 없다. 아울러 사람들이 은퇴할 즈음에 자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 몇몇 국가에서는 부분연금제도(partial pension system)를 시행하고 있고, 이중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종종 간과되는 것 중의 하나가 퇴직이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책 수립시 퇴직이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람들은 일에서부터 여가로 전환한다. 즉, 사람들은 근로소득 수입에서 연금수입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 퇴직자들은 가구와 주거지를 바꾼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퇴직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하게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일을 그만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도 아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다. 어떻게 퇴직 전 연령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도 부분적으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달려있다.

가구수입의 규모는 대부분 가구원수 같은 가구 구성원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직 이후 고령자부부가 가족으로부터 분가하는 유형을 보인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퇴직자 가구가 성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양국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젊은이가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머무는 문화를 반영한다. 일본에서는 일부 일을 그만두는 노인들이 취업중인 자녀들과 합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수입제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여가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주어진 여가시간은 수동적(TV시청)이거나 혹은 적극적(스포츠, 독서, 봉사활동)으로 보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형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퇴직과 “활기찬 고령화”가 병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다. 퇴직한 남성이 여가시간을 가사노동하면서 보내지는 않는다.

2) 퇴직시기

(1) 고령남성의 취업률 증가

몇 년전 「고령화 사회의 변영유지」보고서가 출판되기 전에, 고령 남성의 취업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조기퇴직 경향은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만 고령남성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미국 두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 고령남성의 취업률이 약간 증가하기조차 했다. 두 국가는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이 매우 하락한 나라들이다. 독일의 경우는 다소 안정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을 때, 고령자 코호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여성은 고령남성보다 여전히 빨리 퇴직한다. 여성 취업률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고령여성은 남성과 같이 혹은 더 빠르게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특정 연령대의 피용인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취업남성보다는 취업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핀란드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순이탈율’(net withdrawal rates)이 남성보다 높다.

(2) 급작스런 퇴직

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취업한 고령남성 중 상당 비율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부분연금제도(partial pension system)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국가가 주목된다. 아울러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방식’을 고친 일본도 눈에 띈다. 네덜란드에서는 취업한 고령남성 3명중 1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네덜란드는 남성 계약직 고용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다른 한편,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절대 고령 계약직 노동자 수가 작다 : 이러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소수의 고령남성만이 일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스웨덴, 일본, 미국에서는 계약직 고령남성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에서는 계약직 노동자가 급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부분연금제도 하에서 혜택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1994년 이후 보상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근로시간(non - worked hours)이 줄어들었다. 스웨덴은 부분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00년 이후 새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다.

(3) 노년기 자영업자 자동증가 아님

모든 국가에서 상당수의 고령취업자는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노후에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는 인구비율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는 표 8.5에 제시되었듯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경력으로서의 일’(career)에서 ‘교량적 일’(bridge jobs)로 이동하고 있는 남성의 자영업 취업이 약간 상승세를 보여준다. 미국은 연구대상이 된 모든 국가의 고령남성 중 눈에 띄게 자영업 비율이 가장 낮고, 심지어 자영업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물론 ‘교량적’ 일의 중요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4) 거주형태의 변화

동거하는 가구원이 공동 지출시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태는 소득이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수입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구의 소득자 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 맞벌이 가족에서 볼 수 있는 특성들이다. 부부 모두 연금을 수급하면서 퇴직한 경우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로 중요한 것은 주거형태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고 대부분 부모집을 떠난다. 따라서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화 후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령 부모들은 특히 독신, 성인자녀와 함께 살게 된다.

60-64세의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명 혹은 두 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국가가 주목된다.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1명이나 2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40 퍼센트를 약간 넘는다. 이 두 국가에서는 퇴직연령에 달한 사람들은 보통 동거하고 있는 성인 자녀가 있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에서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일본에서는 이보다는 약간 적은 수가 가구주의 자녀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10 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는 가족이 후반기에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결혼하기까지 집에 머무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연금 이외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는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젊은이가 가구이전소득과 부모의 수입, 그리고 부모의 퇴직후 연금 혜택에 의존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환기가 지난 후, 다른 국가와 같이 이탈리아에서도 가족 분리 과정이 지속된다. 50대 중반과 60대 후반사이에 1명으로 구성된 가구나 2명으로 구성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60세 이후 5명이나 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60세 후반 인구의 4분의 1은 5명 혹은 더 많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살고 있다. 반면 50대 후반의 경우는 7분의 1만이 그렇다.

이는 가족이 재결합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 후반기에 처음 나타나고, 다른 국가에서는 미약하게만 나타난다. 이는 일본에서의 연금수급액이 부적절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퇴직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한 자녀의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주택비가 비싸고 장만할 수 있는 집의 규모가 작거나 집이 직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서, 복잡하게 얽힌 세대간 지원체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모 집으로 이사하여 현금과 현물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은 보다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필요한 자원을 상속 받을 권리를 보장 받게 된다.

9. 경제활동기와 은퇴기의 생활시간 소비 경향

1) 요약 및 주요결과

대부분의 정책은 노동시장에서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노인 인구의 적극적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궁극적 의도를 갖고 있다. 노년기 생활형태는 그들이 생산가능 인구로서 노동시장에 참가했던 과거에 따라 많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단순히 노년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참가와 여가생활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본장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강문제가 주요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노년기에는 수동적 생활 태도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은 은퇴기보다 훨씬 앞서 이들의 행동 및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의 장기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수동적 생활태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적극적 고령화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상당수의 정부 지원방안은 노인의 봉사활동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비임금노동시간의 상당부분이 20대, 30대 및 40대 여성에 의하여 채워지고 있으며, 자녀양육을 제외하면 극히 적은 시간에 불과하다. 봉사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측정이 없이 단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는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극소수만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물론, 특정 노인들은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인구 대비 극히 부분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일제 또는 시간제 임금노동시간과 비임금노동시간 사이의 강력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자

원봉사활동과 같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적 퇴직연령인 55~64세 인구의 시간소비 유형을 살펴본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은퇴 직후 초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전의 생활시간 소비 유형을 유지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은퇴 후반기에 이르면 은퇴 전 휴일과 같은 시간소비 유형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는 노인인구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단순히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3) 예상되는 쟁점들

노인기에 증가되는 수동성으로부터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상태와 수동적 활동 증가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55~64세 연령의 수동성 증가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상태는 주요 변수가 아니었으나, 건강상태의 악화와 의존성의 증가는 노인의 생활시간 소비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코호트별로 은퇴기에 이르러 생활시간 소비 유형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 노동참여 및 은퇴유형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노년기에 비임금 노동시간 소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노인인구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미래세대의 노인인구는 그들의 생활시간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시간 소비 형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보다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아울러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시간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실태자료가 매우 드물다.

10. 일부 국가에서의 개인적·사회적 고령화 시나리오

1) 요약 및 주요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 기간과 퇴직 기간의 균형은 개인이 퇴직을 결정하는 시점과 퇴직기 인구대비 근로 연령 인구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단·장기적으로 정책 자체가 인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정책은 개인이 근로와 퇴직에 보내는 시간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생애 근로 패턴의 경향을 조사하고, 개별 근로자 삶에서의 변화가 사회의 고령화 압력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조사한다. 이 논의는 현재 수행중인 OECD의 퇴직 소득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예이다. 이 나라에 구축된 패널 자료가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십년 간의 일반적인 패턴은 취업 인구 집단의 비율 증가이다. 만일 실업률이 예전처럼 낮았다면 고용 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지속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주요한 영향 요인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고령화였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현재는 전층 인구 대비 근로연령 계층 인구가 줄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코호트가 많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참여 패턴도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남성의 기대 고용기간이 극적으로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퇴직 기간의 증가로도 반영된다. 반면 여성은 인생에서 고용으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 두 요소가 인구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시간에서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2) 근로와 비근로 소요년수

연구 대상국가 대부분에서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난다. 남성의 고용 소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남성들은 과거에 인생의 대부분 동안 일을 했었다. 그러나

점점 더 빨리 은퇴하고 있으며, 은퇴한 후 더 오래 살고 있다. 여성들 또한 더 빨리 은퇴하여 은퇴한 후 더 오래 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근로에 소요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OECD 평균치인 캐나다를 예로 들어보자. 1970년에, 남성들은 인생에서 44년을 근로하고, 다른 26년은 다른 것(교육, 실업 혹은 퇴직 후)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경향이 2030년까지 계속된다면 남성들은 보수 근로에 35년을 보내며, 일하지 않는 해수가 44년이 될 것이다. 캐나다 남성의 경우, 고용과 비고용 기간이 서로 바뀌는 지점에 와 있다. 1970년에, 캐나다 여성들은 고용에 19년을 보내고 비고용 상태로 58년을 보낼 것이 기대되었다. 2030년에는 38년이 고용, 47년이 비고용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패턴은 많은 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물론 시점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교차 시기는 1980년이였다. 네덜란드 남성의 경우는 이미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의 경향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급격히 바뀌고 있다.

3) 고용 인구집단의 비중

정책적 견지에서 보면 중요한 결론은, 생애에 걸친 고용 패턴에서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복잡한 요소들-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급여 시스템에서 근로에 대한 유인, 노동 여건, 근로와 레저 간의 선호 변화, 가족과 성-의 산물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이 인구 고령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반면, 고용 패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일생의 고용 패턴변화가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다.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지표는 고용 인구-전체 인구 집단이 소비할 자원을 만들어내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담당-의 비율이다. 고용 인구의 비율은 두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변화하는 고용 패턴이다. 두번째는 인구 고령화, 즉 비근로인구 집단 대비 근로 인구 집단의 크기이다. 노동력 통계는

고용율-각 연령별 인구 대비 고용된 인구의 비율-에 일단 주목한다. 국가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년 간의 지배적인 패턴은 고용된 인구 집단의 비중 증가이다. 인구 구조상 긍정적인 경제적 역할이 기대되었다.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체 인구 집단을 위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진 근로 연령에 속한 인구가 컸기 때문이다. 이 성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할 때까지 향후 1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패턴은 국가마다 달라서 일본의 경우는 이미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4) 미래 시나리오

9개 국가에서 미래 노동시장 참여 추세에 대한 상이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된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정의 가능한 효과를 탐구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 작업은 노동시장 참여-가장 불확실한 변수이고 가장 정책 효과가 불명확한 옵션-의 변화가 미칠 효과를 탐구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개발된 3가지 시나리오에서, 여성 참여율은 최근 추세와 맞추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가정된다. 여성의 참여는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와 퇴직 패턴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편, 중요한 요소인 실업은 5% 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초점은 특히 퇴직의 시점에서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추세를 알아내는 것이다. 노인 인구의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성공하면 명백하게 실업을 줄이게 될 것이다.

첫번째 “벤치마킹” 시나리오에서, 남성의 참여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두번째 “지속 시나리오”에서, 남성의 참여는 오늘날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된다. 세번째 ‘역전 시나리오’는 조기 퇴직으로의 기존 추세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 가정되고 1960년대와 같은 수준으로 남성의 참여율이 회복될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회복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11.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다음 조치

1) 요약 및 주요결과

많은 불확실성의 영역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혁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 그리고 응용 연구에 우선순위를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 분석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점은 퇴직에 있어야 한다. 이는 넓게 말해서 퇴직 소득 제도뿐만 아니라 고용 상태와 퇴직기간에 소요된 시간의 균형, 근로에서 퇴직으로의 이행 과정(노인 적합 직종을 포함), 노인의생활 여건과 경제·사회적 기여를 포괄한다. 발생할 변화의 범위를 밝히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책의 역할을 조사하고, 개혁 방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미래의 모니터 대상 : 노인, 고령 인구집단, 그리고 퇴직 인구집단

모니터와 정책 분석을 위한 국가 전략 틀은 대체로 다음에 초점을 둔다 : (a) 노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혹은 (b)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즉, 능동적 고령화접근). 그러나 두 부문 모두 국제적 수준에서 감독 체계가 이상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1) 노인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면 주요한 목표를 잃을 수 있다.

노령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개혁은, 노인 특화한 정책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평생 교육과 같은 것이다. 고용과 교육 정책이 노동력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에 필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건 요양 제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구집단의 고령화-그리고 연령 관련 질병-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노인 보건에만 집중하는 연구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 허약한 노인 대상의 장기 요양은 “노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표제하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감독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령 대에게 영향을 주는 연속적인 의존과 보살핌 및 수발을 강조하다 보면 노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이 재정 통합 측면에서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모니터링 활동은 반드시 연령 연계형 지출과 수입-연금과 보건 요양-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요소와 고립된 채 입안·시행되는 고령화 정책의 재정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슷한 언급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연금 기금 자산의 성장은 국제적인 공통 요소로 감독과 경험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 시장의 다른 영향력을 배제하고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별 함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적절한 규제와 감독 틀의 개발은 여러 다른 나라의 정책 접근과 국제적 경험을 통합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층 중심의 정책 구성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고령화에 대처하는 시각은 넓어야 한다.

종종 누락되고 있지만, 적극적 고령화-「고령화 사회의 변영유지」보고서에서 제시한 시각-역시 중요하다. 적극적 고령화는 여러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정책 주제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는 자료 개발과 지원 정책 개발에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로부터 퇴직으로,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을 모두 아우르며, 평생교육으로부터 건강한 고령화까지 모든 정책을 포함한다.

(3) 노령보다 퇴직이 보다 유용한 초점일 수 있다.

변화하는 퇴직 제도 자체가 앞으로 몇 년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책 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다. 이러한 강조는 전통적인 퇴직 연령 노인의 보건, 복지와 경제·사회적 기여 뿐 아니라 근로-퇴직 전환을 포함할 것이다.

일관된 고령화 패키지는 (a) 퇴직 관련 특별 정책과 (b) 재정, 조세, 보건,

금융과 노동시장 활동 전분야에서 모니터링 진행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향후 연구내용

대다수의 나라에서 개혁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강조점은 개혁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아래의 조치들이 발견된다.

- 개별 국가들의 상황과 상이한 집단의 퇴직 여건을 모두 고려하는 보다 표적화한 정책 분석 :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위험, 편익, 그리고 비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 : 근로소득 그리고 세금과 같은 개별 요소 측면 뿐 아니라 여러 타입의 공적, 사적 연금 등 퇴직 소득 제도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 개혁 과정에 대한 추가적 분석 : 어떤 개혁이 개발되고 논의되는지의 과정을 조사함으로써 특히 잘 작용한 협의 기제와 대중의 태도 등이 분석될 수 있다.
- 효과가 측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개혁의 결과를 감독할 도구의 개발을 지원 : 연금 추계에 사용된 인구학적 가정은 수명 증가를 과소평가해왔다. 미래의 퇴직에 대해서 합리적인 일련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재정 혹은 기타 추계를 시행할 합의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미래의 추계가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 규모를 측정하고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할 일관된 자료 개발과 응용 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료가 중요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미래의 퇴직 패턴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정책이 어떻게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책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4) OECD의 대응

OECD를 포함하여 많은 조직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조치에 개입

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는 현재, 표적집단별 분석, 제도 분석, 개혁과정과 정보 구축 및 필요와 관련된 많은 주제를 탐구할 9개국 퇴직 소득 정책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주제들을 탐구하는 두번째 방법은 OECD Economic Survey에 포함된 개별 국가의 고령화 관련 특별 chapter의 구성이다. 이는 퇴직과 고령화 관련 이슈를 탐구할 수 있는 특별 연구를 모아놓게 될 것이다. 연령 연계 재정 추계 작업 역시 현재 진행중이다. 이는 유럽연합과의 상호 협력 하에 수행중이다.

고령화 관련 논의는 금융 시장과 사적 연금을 포함하여 OECD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규제 분석 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개혁의 필요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넘어 실제 개혁의 이행을 지원하는 보다 특성화한 분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록>

OECD 29개국에서의 고령화 압력과 정책대응

이 부록은 29개 OECD 국가의 고령화 압력을 살펴본다. 이 부록은 국가들 간에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추세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활동의 가능한 영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1. 호주

(1) 개인들은 OECD평균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많은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을 감소가 현격하여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호주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4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호주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근로에 소요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의 전형적인 남성의 패턴은 고용에 보내는 기대 년수에서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인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에 보내는 기대 년수는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전형적인 OECD 국가에서 오늘날 남성은, 고용에 자신의 인생의 단지 절반을 소요한다. 반면 여성은 고용에 더 많은 전보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호주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는 출산율 저하가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다. 호주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10%미만에서 오늘날 12%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경에는 약 20%가 될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4) 노인의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전형적으로 근로 연령 집단의 규모와 연계하여 의존 인구의 크기를 조사함으로써 고령화 인구층의 압력을 조사한다. 이는 노인 인구 집단이 경제에 만들어내는 압력—근로 연령인구가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 미치는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급여의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 대비 수급자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은 급여가 조달되는 방식과 노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사실에 의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2. 오스트리아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OECD 평균에 가깝다. 많은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에서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 연장에 영향을 주었다.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6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의 오스트리아 여성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되며, 남성은 16년을 더 살 수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근로에 소용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해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해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3)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약 OECD 평균 수준.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12% 이하로부터 오늘날 15%까지 성장할 것이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6%에 달할 것이다.

(4) 노인의존율 증가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노인 의존율은 오스트리아에서 약 201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다. 유용한 조정(adjustment)은 노인의 수와 실제 고용된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기 퇴직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근로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치는 위의 선에 표시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측정 방식보다 2010년 이후에 더 급속하게 상승한다. 오늘날 3명의 근로자 당 1명의 노인이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노인 1명당 1.5 명의 근로자만이 있을 것이다.

3. 벨기에

(1) 개인들의 수명은 OECD 평균에 근접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OECD 평균에 가깝다. 많은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 증가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65세인 벨기에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되며,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근로에 소요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해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특히 퇴직과 같이 근로 외에 시간을 보내는 해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전형적인 OECD 국가의 사례에 따르면 남성이 고용 상태로 자기 인생의 단지 절반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은 고용 상태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인구의 고령화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구 고령화의 주요 책임은 출산율 저하에 있다. 벨기에의 인구는 점점 나이 들고 있다—대략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12% 이하로부터 오늘날 17%까지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 2030년이 되면 약 25%의 인구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은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추세는 OECD 평균 정도이다. 그러나 벨기에 인구의 미래 예측에 따르면 OECD 평균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4) 노인의존율 증가

인구학자들은 전형적으로 근로 연령 인구 규모 대비 의존 인구의 크기를 조사함으로써 고령화인구 집단의 압력을 측정한다. 이는 노인 인구 집단이 전체적으로 경제에 주는 압력—근로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과 같은 급여에서 대략적인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 대비—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가 조달되는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 캐나다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9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 79세와 85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65세인 캐나다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근로 소요 년수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캐나다 남성은 기대 수명의 약 절반—38년—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 가정하에서 2030년경 남성은 35년 동안 고용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44년).

오늘날 캐나다의 여성은 3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2년은 고용되지 않은 채 보낸다. 2030년 경에는 고용에 소요할 기간이 38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비고용 기간은 47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인구고령화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캐나다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960년 10%이하에서 오늘날 12%까지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0%의 인구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 노인의존율

인구학자들이 의존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근로연령 집단의 규모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 집단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인구

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압력—근로 연령층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을 측정하는 유용한 방식이다. 몇몇 경우에, 의존율은 또한 공공 재정에서 고령화의 압력—공적 연금 수급자 수 대비 기여자와 조세 납부자의 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재정 비교는, 급여 조달 방식과 노인 역시 조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캐나다의 노인의존율은 2010년 이후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5. 체코

(1) 개인수명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체코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7세와 83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65세 체코 여성은 17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3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 낮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는 체코의 경우 예측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해수는 최근 수 십 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해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 작업에 사용된 기술은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체코 공화국에는 적용되기 힘들고, 따라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생애년수의 예측 역시 비현실적이 되기 쉽다.

(3) 체코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캐나다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 약 OECD 평균 수준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10%이하로부터 오늘날 13%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에는 6%에 달할 것이다.

6. 덴마크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0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7세와 82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인 덴마크 여성은 18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OECD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에 따르면, 남성이 인생에서 고용상태로 보내는 해수는 최근 수십년 동안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학교, 실업 그리고 퇴직기간 등 노동 외에 보내는 해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남성들은 더 빨리 퇴직하고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의 전형적인 예를 보면, 남성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 고용상태로 지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상황은, 최근 수십년간 덴마크 여성이 근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외하면, OECD 와 흡사하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덴마크 남성은 4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4년은 비고용 상태로 생활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5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2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덴마크의 여성은 3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2년은 비고용일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는 38년 정도를 고용상태로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덴마크의 인구 역시 고령화하고 있고, OECD 평균보다 좀 더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덴마크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 약 OECD 평균 수준이다. 65세 이

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0%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이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6%에 달할 것이다.

7. 핀란드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5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핀란드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핀란드에서는 새로이 고용되는 인구와 고용으로부터 벗어나는 인구가 비슷해지는 경향이 좀 더 일찍 발생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핀란드 남성은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2년은 비고용 상태로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경 남성은 28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50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핀란드의 여성은 2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1년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2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핀란드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고, OECD 평균보다 좀 더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핀란드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 약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7%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8%에 달할 것이다.

8. 프랑스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5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프랑스 여성은 21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프랑스에서 남성의 고용 쇠퇴는 OECD 평균 보다 심각해서 1980년대에 이미 고용기간과 비고용기간이 같은 지점(교차지점)에 이르렀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프랑스 남성은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3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29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9년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프랑스의 여성은 25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8년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3년으로 늘어나고 52년 동안 비고용 상태로 살게 될 것 같다.

(3) 프랑스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좀 더 연령이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프랑스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 약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2%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9. 독일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독일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독일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 근처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독일 남성은 36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8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34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4년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독일의 여성은 2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2년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9년으로 늘어나고 고용되지 않은 채로 45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독일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연령이 더 높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2%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이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5%에서 2030년 6.5%에 달할 것이다.

10. 그리스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1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그리스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그리스는 OECD 평균보다 여성의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제외하면, OECD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그리스 남성은 37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33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5년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그리스의 여성은 21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60년은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2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52년을 살게 될 것 같다.

(3) 그리스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더 연령이 높고, 점점 빨리 늙어가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8%로부터 오늘날 약 18%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11. 헝가리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6세, 여성은 71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4세와 80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헝가리 여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이하이다.

(2) 헝가리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있다—OECD 평균과 근사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9%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9%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3) 대부분의 나라보다 다소 심한 고령화 압력

헝가리에서 현재의 노동 시장 추세가 미래까지 지속된다면, OECD국가보다 훨씬 빠르게 비율이 상승할 지 모른다.

12. 아이슬란드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고, 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1세, 여성은 76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80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아이슬란드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아이슬란드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과 꽤 다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아이슬란드 남성은 48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0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 고용 상태에서 보내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56년간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5년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여성은 4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7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37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더 고령화하고 있다—OECD 평균 수준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8%로부터 오늘날 약 12%까지 성장할 것이다. 2030년 경에는 약 19%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13. 아일랜드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고, OECD 평균에 근접한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기대수명은 남성,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2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아일랜드 여성은 17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아일랜드에서의 상황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여성 고용이 상당히 늘어난 것과 더불어, 오늘날 OECD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아일랜드 남성은 인생의 절반—38년—동안 고용되어 있고 37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4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5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날 아일랜드의 여성은 24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5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8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5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아일랜드의 인구는 늙기 시작하였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최근 수십년간 약 11%로 안정적이었다. 2030년 경에는 약 18%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14. 이탈리아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2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이탈리아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이탈리아에서 근로 쇠퇴는 매우 심각하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자들은 인생의 절반 정도만을 근로에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탈리아는 그 지점을 이미 10년 전에 도착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이탈리아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년 동안 고용되고 43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27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시간은 52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여성은 1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63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27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58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보다 낮다.

(3) 이탈리아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0%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까지 거의 30%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율 또한 심각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8%에 달할 것이다.

15. 일본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일본에서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 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2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80세와 86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일본 여성은 22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7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일본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OECD의 평균적인 패턴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아니다. 남성의 평균 고용연수 기대는 감소하지 않았고, 향후 오랫동안 비고용 기간보다 더 길 것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일본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상—46년—동안 고용되어 있고 31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같은 햇수만큼(47년) 고용될 것 같고, 그러나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시간은 33년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오늘날 일본의 여성은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1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8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8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일본의 인구는 OECD 평균 보다 더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일본의 인구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약 OECD 평균 수준.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6%로부터 오늘날 약 17%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7%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10%에 달할 것이다.

16. 한국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54세, 여성은 57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5세와 81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한국 여성은 17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3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한국에서의 상황은 남성의 경우 OECD 평균과 다르지만, 여성의 경우는 비슷하다. 남성의 경우 OECD 평균과 일본의 중간쯤 되는 패턴을 보인다. 인생에서 근로로 보내는 기대 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한국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상인 43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27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42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4년으로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오늘날 한국의 여성은 2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8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6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6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고령화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평균보다 아직 상당히 젊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수십년 전에는 OECD 평균 보다 젊은 나라였는데, 그 차이를 줄이면서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3%로부터 오늘날 약 7%까지 성장할 것이다.

2030년 경에는 약 18%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율은 더 심각하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17. 룩셈부르크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에 가깝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6세, 여성은 72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룩셈부르크 여성은 18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룩셈부르크는 근로에서의 삶과 근로 밖에서의 삶의 기간이 같은 지점을 1990년대 초반에 도착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OECD 평균과 비슷하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룩셈부르크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하인 34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30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7년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룩셈부르크의 여성은 2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3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50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룩셈부르크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룩셈부르크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덜 고령화하였고, OECD 평균을로 성장할 것이다. 1960년 약 11%로부터 오늘날 약 14%까지 성장할 것이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18. 멕시코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현재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하이지만, 따라잡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56세, 여성은 61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5세와 81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멕시코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65세에 수명 기대 수치는 OECD 평균에 근접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멕시코에서의 상황은, 남성 근로 햇수가 높아지고 있고 감소율이 적다는 점에서 OECD 와 다르다. 현 보고서가 예측하고 있는 기간 내에 교차지점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여성이 고용으로 보내는 햇수는 OECD 평균보다 늘 낮았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멕시코 남성은 51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20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45년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5년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멕시코의 여성은 23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4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2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9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멕시코의 인구는 OECD 평균보다 젊지만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의 수준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출산율 저하가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다. 멕시코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그러나 OECD 평균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2030년 경에는 약 11%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수는 작다.

19. 네덜란드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1세, 여성은 76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4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네덜란드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네덜란드의 상황은, 남성을 덜 고용하려는 경향이 이미 역전되었고, 여성 고용의 성장이 OECD 평균 보다 높다는 점에서 OECD 평균과 꽤 다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네덜란드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상인 4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6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증가한 44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4년으로 약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네덜란드의 여성은 28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3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1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2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네덜란드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비록 2010년 이후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지만, 네덜란드의 인구는 약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령화하고 있다. 2030년 경에는 약 26%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20. 뉴질랜드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에 가깝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뉴질랜드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뉴질랜드의 상황은, 남성의 경우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여성의 경우 고용으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뉴질랜드 남성은 그들 기대 수명의 절반보다 조금 긴 39년 동안 고용되고, 36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5년 미만을 고용상태로, 반면 43년 이상을 비고용 상태로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날 뉴질랜드의 여성은 4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7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37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뉴질랜드는, 여성의 교차점이 본 보고서의 예측기간 내에 도달할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3) 뉴질랜드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뉴질랜드는 OECD 평균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더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9%로부터 오늘날 약 11%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9%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

21. 노르웨이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1세, 여성은 76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노르웨이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노르웨이에서의 상황은, 여성의 고용율이 빠르게 성장하고, 남성의 고용율이 평균 이상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OECD 평균과 비슷하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노르웨이 남성은 44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1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41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38년으로 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오늘날 노르웨이의 여성은 3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2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6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39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노르웨이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1%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6.5%에 달할 것이다.

22. 폴란드

(1) 개인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다소 아래에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6세, 여성은 71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5세와 82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폴란드 여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폴란드에서의 상황은, 남성의 고용율이 낮고, 여성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상승률이 낮다는 점에서, OECD와 다르다. 불행하게도,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법은 데이터가 제한된 폴란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3) 폴란드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폴란드 인구는 대강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6%로부터 오늘날 약 12%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0%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4.5 %에 달할 것이다.

23. 포르투갈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낮았으나, 꾸준히 높아져 지금은 OECD 평균에 가깝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1세, 여성은 67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7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포르투갈 여성은 18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포르투갈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과 비슷하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포르투갈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 이상인 39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4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단지 33년 동안 고용될 것 같고,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4년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포르투갈의 여성은 30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9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4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포르투갈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포르투갈 인구는 OECD 평균 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8%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6%에 달할 것이다.

24. 스페인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스페인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스페인의 상황은, 남성의 경우 교차점을 이미 10년 전에 도달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OECD 와 비슷하다. 여성의 고용수준은 과거에는 낮았지만, 예측 기간 끝에 가면 OECD 평균을 따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스페인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이 안 되는 33년 동안 고용되고 42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2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7년으로 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수명 연장의 결과이다.

오늘날 스페인의 여성은 18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64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4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51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스페인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스페인 인구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빠르게-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8%로부터 오늘날 약 17%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6%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25. 스웨덴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72세, 여성은 76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80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스웨덴 여성은 20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스웨덴에서의 상황은 남성의 경우 OECD 평균 근처이다. 여성의 경우 역사적으로 평균 근로년수가 높은 패턴이었다. 그러나 그 격차는 1990년대 이후 줄어들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스웨덴 남성은 기대수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간인 37년 동안 고용되고 40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다소 적은 33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7년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스웨덴의 여성은 34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8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6년으로 조금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9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스웨덴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스웨덴의 인구는 고령화 할 것이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8.5%에 달할 것이다.

26. 스위스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9세, 여성은 75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9세와 85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스위스 여성은 21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불행하게도, 스위스의 관련 데이터는 설득력 있는 예측치를 얻기에는 너무 최근 자료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노동 시장 여건하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평균보다 고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3) 스위스의 인구는 고령화 할 것이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스위스 인구는 OECD 평균보다 더 고령화할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0%로부터 오늘날 약 15%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5%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5%에서 2030년 7%에 달할 것이다.

27. 터키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하이지만, 그 차이를 줄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터키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51세, 여성은 5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4세와 79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터키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터키에서의 상황은, 짧은 수명 때문에 남성이 고용 외에 보내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OECD와 다르다. 여성의 고용을 역시 상당히 낮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터키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인 41년 동안 고용되고 28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조금 감소한 33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1년으로 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터키의 여성은 15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58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현재 추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한편 63년 동안 비고용 상태로 지낼 것이다.

(3) 터키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터키의 인구는 고령화할 것이다. 그러나 OECD 평균보다는 젊게 남아 있을 것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4%로부터 오늘날 약 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11%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율은 매우 작다.

28. 영국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8세, 여성은 74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영국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영국에서의 상황은 OECD 평균과 비슷하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영국 남성은 기대 수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38년—고용되고 37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은 34년 동안 고용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44년으로 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영국의 여성은 3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9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38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45년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3) 영국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12%로부터 오늘날 약 16%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3%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2%에서 2030년 6.5%에 달할 것이다.

29. 미국

(1)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가 기대수명을 연장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0년에 남성은 67세, 여성은 73세였다. 2030년 경에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78세와 83세로 증가할 것 같다. 현재 65세의 미국 여성은 19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은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과 비슷하다.

(2) 평생 근로에 소요하는 년수

미국의 상황은 남성의 근로 쇠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OECD와 다르지만, 여성이 근로에서 보내는 시간은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미국 남성은 인생에서 42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32년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서 2030년에 이르면 남성의 고용은 많이 변화하지 않을 것—41년—이지만, 비고용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수명증가의 결과로 37년으로 상승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여성은 36년 동안 고용되어 있고 45년은 비고용 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 경에 이르면 고용에 소요하는 기간은 43년으로 늘어나고 비고용 상태로 남아있는 기간은 4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3) 미국의 인구 역시 고령화하고 있다 -OECD 평균 수준

증가하는 기대수명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이다.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에 책임이 있는 것은 출산률 저하이다. 밑에 있는 차트는, 65세 이상의 인구집단의 비율이 1960년 약 9%로부터 오늘날 약 12%까지 성장할 것을 보여준다. 2030년 경에는 약 20%가 65세 이상일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더 급격하다. 1960년 1.5%에서 2030년 5%에 달할 것이다.